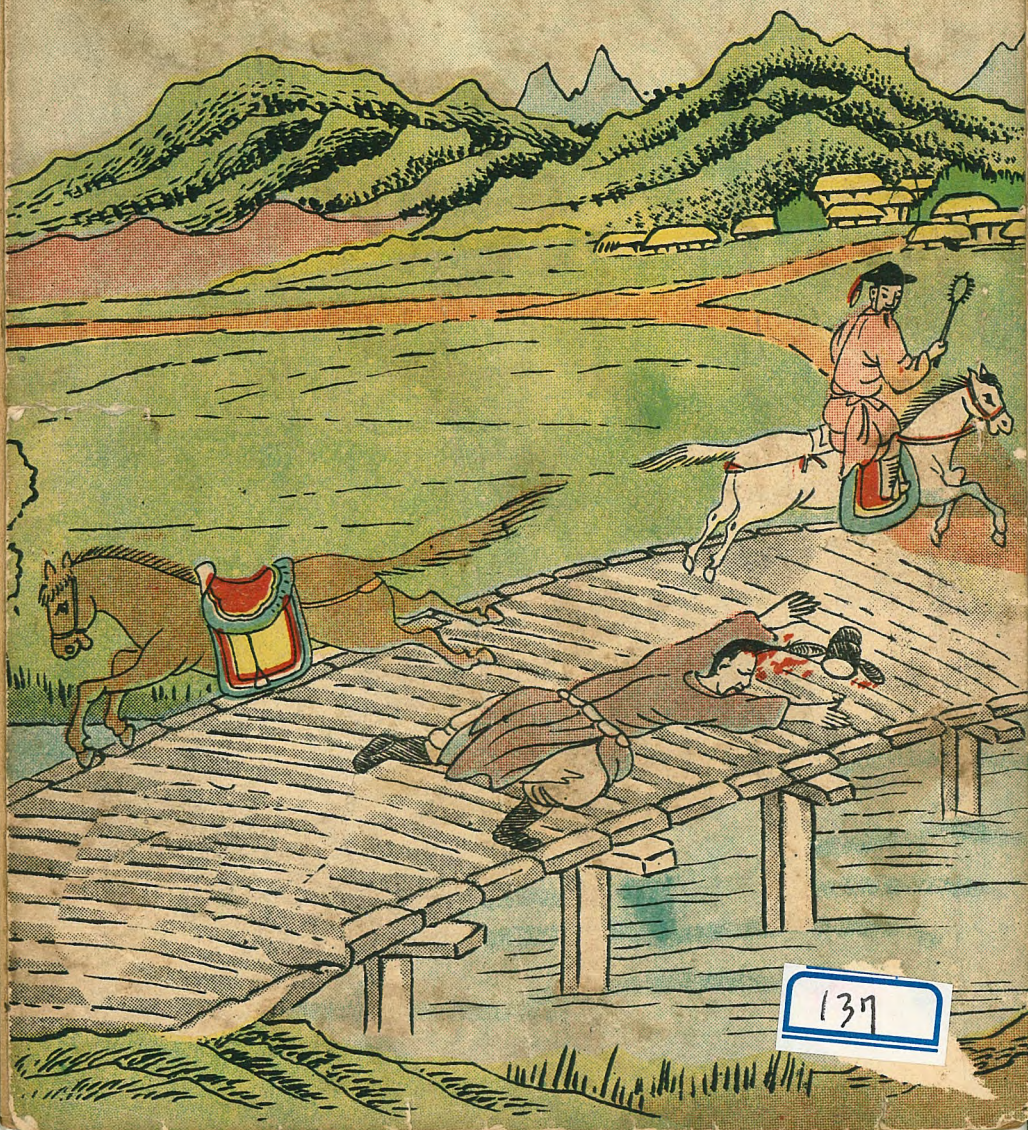


善竹橋

傳隱圃鄭名一



137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선 죽 교

登錄番	3120
分類番	
圖書番	

선

죽

교

선죽교라하면 고려국에서 사백칠십오년을 도읍하였든 송도성중에잇는 돌다리일홈인줄은 물으는사람이업스니 암만 왕도되었든 곳이기로서 조고마한 돌다리한아에 었지하여 사람마다아는 일홈을가졌스며 또는엇지하여 그다리일홈이 선죽교나하면 그런 리유가잇다 고려국은 운이진하고조전국이 명을받는 그때에 고려국충신포은선생이 그다리에서 순절하였는데 순절하는자리에 피혼적이잇서서 지금까지 오륙백년이되도록 업서지안이함애 그충절을 그다리로 괴롭히는고로 사람마다아는바이오또는 그다리일홈이 본래는선지교(選地橋)인데 선생이순절하든날에 그다리우에 대가났습으로 다리일홈을선죽교라곳쳤스니 선생의 정충대절로인연하여 그다리일홈이높혀졌다 이제 이사람도 포은선생전을보다가 감동함을마지안니하여 선죽교란제목을가지고 선생의 자초지종역사를 보기쉬운언문으로 번역하여 부녀아동까지라도 선생은 특이한사람인줄을 알도록함이다 그러하나 이사람은 의견이미거하고 언변이부족하여 선생의 도저한덕행과 지극한충절을 비진히번역지못하여 루락함이만앗슬싸 스사로의심함이 적지안이하다

선생의 성은 정씨(鄭氏)요 본은연일(延日)이요 일흥은몽주(夢周)오 자는 달가(達可)요 별호는포은(圃隱)이요 교향은경상도영천(永川)이니 대대명 환가자손이라 그부친은 일성부원군운관(日城府院君云瓚)이요 그모친은리 씨(李氏)니 그부모는 자녀를여러번 생산하였으나 길느지못하여 근심으로 지내는데 하루는그부친이 대낮에 서재에안젓다가 홀연히몸이곤핍하여 잠을일우어 꿈을꾸었는바 이목이청수하고 괴상이엄연하며 고대의관으로 몸을장식한사람한분이 완완이압헤이르려하는말이 나는 옛적중국 주나라 문왕의아들 주공이란사람인데 그대의집에 귀한아들한아를 점지하려왔스 니 그대는 별로히주의하여 시각을넘기지말을지어다 동으로오는북은기운 이 징험이니라 하는말슴을맛친후 대답도기대리지안코 곳삼애를떨쳐나아가신다 꿈꾸는주인은 주공이하림하섯슴을 황감무지하여 이러나사레코저 하든제음에 홀연히놀나매여 감안이생각하니 극히조흔대몽이라 즉시이러 나 의관을정제하고 공중을향하여 무수이절하며 무수이일건는동시에 난 데업는 채색구름한줄가가 서편으로조쳐 자괴에집을향하야들어오는바 그 뒤에는 상사말한필이 흐르는살갓치쫓차들어온다 그구름은 꿈에듯는 북 은괴운일시 적실한데 그집에암청내는 괴말하필이이서서 상사말이들어오 면 곳교합이되여 그괴운을 말에끼애일모양이라 시각을넘기지말나든 말

슴을생각하는주인은 사세가급함을보고 곳벽장에걸인 장검을빼여들고나가 가 들어오는상사말의 목아지를베혀죽이고 고개를돌으켜보니 그구름괴운 이 자괴에집내청으로 들어간다 인하여그괴운을 썰러들어갓스니 때느정 오시라 부인리씨를향하여 교합하기를 청하였스매 부인은번거함을협의하 여 뜻지안코저하다가 그남편이지재지삼 졸느는지경에일르러는 할일업시 처종하여 선생을인래하여 십사만에순산하였는데 순산하든전날밤에 리씨 부인이 꿈을꾸었는바 란초심근분을만해보았는코로 선생에일흥을 몽난(夢 蘭)이라지엇더니 선생이여섯살되때에 리씨부인이 우연이낮잠을들어 꿈을 꾸족 뒤젓배나무우에 권은용한아이올나가 설이엿는지라 꿈을꾸후이상아 녀이여 못나아가보니 선생이배나무우에올나안저 배를싸먹는다 부인은그 남편에게 몽사를설명하고 선생의일흥을몽용(夢龍)이라곳쳤다가 성관한후 에몽주라곳쳤스니 잉태할때에 주공을꿈꾸었다는뜻이라 동국에서 류전하 는말에 성인이신주공을 꿈꾸고잉태되신분이니 팔자가쫓갓지만은 그러치 못하여 평생을나라일에극교하다가 필경에 고종명이되지못하였슴은 다름 이안니라 말을죽이고 낮에교합하여서 살괴를때인사닥이라한다 선생이경상도영천군동우항리(東愚巷里)에서출생하였는데 나면서부터 골격 이비상하여 옥갓흔빛치요 금갓흔소리며 원편역하여 검은사마귀인곰이북

두칠성형상으로 박혀있고 을은편다리에 는 검은사마귀셋이 삼태성형상으로
 박혀있으며 눈이 맑고 눈섭이 빼여났으며 손과발이크고 허리가 길며 성질
 이 총명하고 재조가 민첩하여 두어살에 못하는 말이 업고 능히글자를알았으며
 대엿섯살부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여름이면 서늘한곳에안지시게한후
 부채질하여들이고 겨울이면더운곳으로 주무시는 자리를펴노으며 어데
 가서 조흔음식이든지 조흔실과이든지 엿어보면 먹지안코 싸다가 부모께
 들이기와 개와말이라도 부모가 사랑하는것이면 자기도또한사랑하여
 짓는소리를내이지안었스니 유치한년괴로 이갓흔행실은 천성이본래그러함
 이요 억지로지어서하는일이안니라 옛글에 충신은 효자문에가서 구하라
 하였스니 선생이어려서부터 이갓치지극한효자인고로 태종에그갓치가특한
 충신이될줄을 밀우어알만하지 안이한가 철팔세때에 부모께시중하여 가
 며 글을읽는데 한번만배호면 다시는이저마리는 일이업슬뿐아니라 한아
 들들이면 열을알아서 날이가는대로 지식이 다달이더하여서 사람에뜻밖
 게론난이무수하다 하로는교사에게못기를 한울과쌍이생긴후에 사람이성겨
 서 세상만물을 일흥지었스니 대저 하울똥다은데는어데며 쌍씩씩지는어
 데박혔스며 사람은최초에 어데서성겨났소잇가하였스니 그문제에대하여는
 공자님이서라도 대답하시기가어려운문제라 여간교사로서 대답할수잇는가

웃기만하고 대답을못하는교사는 한참만에됨쳐못기를 나는몰으갓다 너는
 알갓느냐하였슴에 선생은아연이우으며 대답하기를 알갓갓흐면 엿주어보
 앓갓소닛가 몰으기에 엿주어본것이지요 그러하오나 제자에어린소견에는
 한울은단단한체격은아이니 쌍과물을싸고잇다할수도업고 쌍이갑여운물건이
 아이니 물에떠잇다할수도업고 사람은무엇이화하여 씨가성긴듯하나 다시
 는화하여되는양을보지못하였스니 무엇이화한것이다 단연할수업소이다만은
 대저 한울과쌍은 널고둥구러서 안도업고 바갓도업는것이오 사람으로말
 하면 동방처음인군단군처럼 씨업시성겨난것이니 굿하여급히궁구할것이아
 니을시다 다만 한울인줄과 쌍인줄만알고 사람의도리만 다하는것이 올
 습지오하였스니 철팔세년괴로 이갓흔어른은 사람이 놀낼만하지아니한가
 교사는 그말을듯더니 괴가질려서 입을열지못하다가 언마만에하는말이나
 는오날이야 한울과쌍과사람과를 엿더한것인지 엿어드렸스니 너는나의제
 자가아니라 나의스승이로다하고 선생의부친을대하여 그수작하든말을 낮
 낮히옵기며 입에침이업시칭찬하기를 당신의아들은 성인군자외다하더라
 선생이아홉살적에 자기의장인되갓는 라판서집에서 글을읽는데 그집사환하
 는 절문비자한아이 선생에게 종용이청하기를 우리난편이 께지어나가잇
 손지여러해에 들어오지안이하니 편지나한장 부쳐보려는데 쓸줄을몰나서

이처럼 말하는 터이니 대서로 좇아 써 주시오한다 선생은 우스며 조히를 펴고 붓
을 들어 쓰기를 구름은 못였다 호터졌다 하고 달은 둥그렀다 이 지러졌다 하되
첩의 마음은 옴기 지안노라 (雲聚散月盈虛妾心不移) 하는 두 귀절만 써서 못한다
그 비자는 그 편지가 넘우 쌀음을 섬섬하여 조금 더 써달나 간청하였습에 선
생은 봉하였든 편지를 다시 써이 고 두 귀절을 더 쓰되 봉하였다가 다시 열고 한
마디 말을 더 하노니 세상에 큰 병은 서로 생각할이라 (鍼了却開添一語世間多病
是相思) 하였스니 말은 간단하나 뜻은 비진이라 그 편지가 세상에 회자하여 사
람마다 외우며 칭찬하더라

선생은 그러한의랑과 그러한 재조로 부지런함을 겸하여 주야 불철하고 글
과 글시를 공부하였스니 그 성취가 엇디 하겠는가 심오세이 전에 말서 문장 명필
이지만은 선생은 인의 도덕으로 동방 성리 지학 (東方性理之學) 을 창사한 조상
이라 엇지 문장 명필로만 대우하리오 심팔세 되든 해에 부모의 명령으로 경
주리 씨 문중에 장가 들었는데 군자의 짝은 숙녀라 부인리 씨 또한 현숙 명철하
고 유한 정정하여 부모에게 효성하며 군자에게 충순하여 선생의 덕을 도왔스
니 통이잇스면 구름이 좃고 범이잇스면 바람이 좃는 다는 옛말이 헛되지안
로다 장가 든 후로 부러는 큰 선배를 아는 대로 추축하며 늙은 벗을 두는 대로 교
제하여 넓은 학문과 깊은 언론을 사람마다 흠모하였섯고 사람마다 감복하였

섯다

선생이 십세 되든 해에 그 부친 일성 부원군이 우연이 병환에 걸리어 점점 미류
하는 지경이라 선생은 얼골에 근심하는 빛을 띄이고 잠자는 때에 옷을 갈아입고
지안이하며 조석에 맛잇는 음식을 먹지안이하면서 극진한 정성으로 사탕구호
하였스나 대한하이의 다친바에 인력으로 어의 올수잇는가 수작을 침면하다가 필
경은 회춘치 못하였습에 선생은 애증 망극하여 물과 장을 입에 대이지안코 주
야로 애곡하니 보는 사람마다 그 효성을 감동치안하는이가 업섯다 그 모친 변
한국부인이 선생의 과애함을 보고 병이 날사념려하여 깨유하기를 들어가신
부친도 생각하려니과 살어잇는 어미도 위로할이 올겠는데 너는 애회함이 넘우
과도하여 몸을 돌려보지안이하니 효도로써 효도를 상하게 말나는 옛사람의
훈계를 생각지 못하느냐 하였습에 선생은 모친의 마음을 위로코저하여 미음
과 죽을 조금씩 먹으며 소리를 내여 울지 못하고 감안이 체을하여 비개와 삼에
에 눈물흔적 이 말느는 때가 업섯다 초종과 장례를 지낸후 묘하에 올을 못고 삼
년을 서묘하였스니 그 때에 상례가 폐괴하여 사대부집에서 상사 당한 지 백일
이면 의례이거 상을 벗는데 선생이 홀로례법을 준행하여 삼년거상을 다하
였을 뿐이라 삼년서묘하지하였습에 식견잇는 사람들은 선생의 효행을 장
하게 녀이더라

시요할때에 묘소는집에서십리라 아침저녁으로 집에들어와 모친제외우고
상식지내고 당신도요괴하고 돌우묘하에가는 수고로움이엇더하였것는가하
루는저녁에 집에갈양으로 움밈게나서는데 어디서왔는 큰범한아이 압해
업티여 가는길을막는다 예상한사람이면 그갓치영악한범을맞났스니 대경
질색을할뜻도하지만은 선생은원간 명수를아는사람이라 별로놀남업시 범
다려효유하기를 너는산군이라 효성과자애의 성질이잇다는동물로서 부친
의거상임은 이사람을해하고저하느냐 산에김생이만흐니 너의세력으로 먹
을것웃기가 무엇이어렵겠느냐 어서물너가 길을퇴위다고하였지만은 범은
업티여잇는체로 고개를숙이고 뉘리를저으며 선생의제복자락을 입으로물
어 지근잡아다린다 선생은그범이 악한뜻업슴을알고 다시말하기를나
다려너를 타고안지라하는뜻이나하였슴에 범은고개를끄덕인다 선생은알어
듯고 범의등에올라안지니 범은선생을태워가지고 쏜살갓치행하여 선생의
집잇는 동리밭게이르러는 녀죽이업티여 선생을내리게하고 숲골속에숨어
잇다가 선생이 모친제외고 상식지내고 요괴한후 돌우묘소에 갈적에는
범이다시나아와태워 산소압사지일으려 내리게하더니 그잇는날새벽에또태
워 동리밭사지고 아침후갈때에는 산밧사지만내려와태워가니 이는사람
의눈을 피하고저함이라 선생이그연유를 모친제외주었슴으로 모부인은알

엇지만은 다른사람들은몰랐다가 세월아길어지는바에는 자연이남의눈에띄
워 선생이범을타고단인다는 소문이퍼져서 효성의감동됨인줄을 사람마다
탄복하더라

선생이시요하든때에 경상도어니고을사는 유생누구한아이 과거를보려 서
을을가다가 날이저무려 주막에서자는데 더운때라방문을열고 멀리바라보
니 건너산중턱에 등불빛히반짝々하는고로 주막주인다려 저곳에인가하
업는데 엇진불이나무럿슴에 어니젊은과수부인이 그식모산소를사요하는음
속에겨노은불빛히라대답한다 그유생은속에불칙한마음이생겨서 반밤쯤뒤후
에 자최를비밀히하여 그움에가서 감안이엇보니 소복한청춘소부가 손
으로뺨을피이고안젖는데 용색이미려하다 유생은 불갓흔욕심을억제치못하
여 렴치를불고하고 움안으로달려들어 검칙하려하죽 그부인이크게쑥지
며 죽기한하고 못지안이한다 유생은생각에 일도되지못하고 그냥내려
가다가는 그부인이뒤를쫓쳐 여러사람에게고하여 자괴를잡어압세우고 고
관할사념려가되는바 원간홍악한심장이라 못된수단으로 차고잇고장도를
빼여 그부인의허리를썰너죽이고 곳자든주막으로내려와 발기를기대릴수업
슴에 행장을가지고 길을떠나올나가다가 그잇는날 영천쌍을지나는데 누
구들의말이 그방안에신동한 점쟁이가잇다한다 유생은그중에도 과거하려

는 욕심이잇는고로 점쟁이를차저가서 자기의사주를일너주고 이번과행에득
실이엇더하겠는가무릎숨에 점쟁이는한참을 궁리하여보다가하는말이 이말
이 좀박절하오만은 과거하고못하기는고사하고 래일오시에 천벌을맞겠스니
조심하오한다 유생은지은죄가잇스닛가 겁이벗혀나서 그러면 엇지하여야
면하오릿가하며 살려달나애걸한다 점쟁이는무망중 말한마디를말은대로하
여놓고 몸서줄리는바에는 피할길이업슴에 또한참궁리하다가 말하기를
여긔서 서편으로 십리만가면 이러한산길에 사묘하는 상제가잇슬터
이니 래일아침후에 그상제에게가서조상하고 그상제의엿헤복부터안져 오
사만지나면 무사하리라한다 유생은겁이낫스니 그말대로할밧게잇는가 점
쟁이에게무수이사례하고 그날밤에어디서 자는동마는동하고 그잇튼날아침
후에 그상제를차저갓스니 그상제는다른사람이안이라 곧선생이시다 유생은
보매평생물으는선생에게조상하고 영절스럽게하는말이 나는과거보려가는유
생이온데 이곳을지나다가드른즉 당신께서지극하신 효자사라하기로 와서
뵈옵소이다하엿스니 군자는가과이방이라 군자도그러할 뜻한말에는 속는
법임에 선생은그말을 그렷커니녀이면서 겸사하고안젧는데 세는오시쯤이
라 별안간구름이모혀들며 비가쏘다지며 되성이요란하더니 벼락불한덩이
가내려와 선생안진을압헤서왔다갓다한다 자기의죄를생각하는유생은 간이

콩만하여 선생의것호로 밧삭닥어안저벌々쓰는데 한날을공경하는 선생은
괴색이숙연하다 한시간후에는 천둥이긋치고 비가개엿스니 벼락귀신이그
유생을싸리려다가 한올이아는 효자의것헤복부터안젧슴으로 싸리지못하고시
간이지나넷가 그만둔것이니 점쟁이가과연신통하도다 비가개인후에 유생
은사례하고갓는데 그날밤에선생의부친이 선생에게현몽하며말하기를 앓가
왔든유생은 과거보려가는길에 시묘하는호부를겁잔하려다가 뜻지안이함애
떨너죽이고 점쟁이에게 길흉을무러보았는데 지나간오시에 천벌을맞겠는
줄아는점쟁이가너에게로지시하여보내여서 너의엿헤안젧섯는고로 천벌을면
하엿지만은 필경에벌은벌대로 당하는날이잇느니라한다 선생은 그꿈을새
여 매우이상이녀엿는데 그유생은서울노을너가서 과거보아락제하고 회환
하는길에다시 선생을차저왔스니 선생의덕을곰압게녀임이라 선생은몽사를
빙거하여 그가괴악한사람인줄 의심하는고로 별로이정답게 대접지안엿슴
애 유생은선생을작별하고나아가는데 선생을되시고단이는벌이 어디숨어잇
다가 별안간달려들어 그유생의먹줄기를물어가지고가서 거의다먹엇는양을
선생이목도하엿지만은 속을아는일인고로 범을채망하지안엿다 그유생이천
벌을 면하도록지시한점쟁이도 죄책을당할뜻하지만은 필경에다시 호환에
갈썰싸지알고 지시하엿는고로 죄벌이업섯다

선생은 지조가 맑고 높아서 부귀를 사모하지 않는 고로 삼연상을 맞치고도 집
에 거하여 글만 읽는다 모친은 선생다려일느기를 너의 집은 대々 명환가라 너
의 나히이십이 넘었고 배운 것도 부족지안이하니 세상에 나아가 몸을 세워서 부
모를 나타내고 나라를 도음이 올흐니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선생은 대답하여 엿줍
기를 지금 나라운수가 차々 쇠하와 괴강이 퇴패하고 법도가 해태하오니 몸
을 세울 만한 때가 안이오나 훈계하심이 이러하시오니 한번 나아가 보겠소이다
하고 곳행장을 수습하여 송경에 올너와 감시라는 과거를 보았는데 어사대부
신군평(申君平)은 당시 문장이라 맞침감시시관이 되여 선생의 글을 보고 크
게 칭찬하여 썩어 장원을 식혔고 그 이듬해에 김득배(金得培)란 재상과 한방
신(韓邦信)이란 재상이 시관이 되여 책문이란 글로 인재를 취택하는데 선생
이 세번 책문에 세번 장원이라 그때로부터 선생의 명예가 경향간에 퍼져서 선생
은 백성을 얻지고 세상을 편안케 할 만한 재조라는 칭송이 자々 하엿슴으로 그
때 인군공민왕이 또한 선생을 중히 여여 조흔 벼슬을 만히 식여서 영화와 총행이
비길 데 업섯다

그때에 김득배는 아래 조로 더부러 홍두적을 파하여 큰 공을 일우었는데 김용
(金鏞)이란 간신이 권세를 천단코저 하여 홍적파한 공신을 모다 모함하여 죽이
는바 아래 조는 조선국을 창업하실 신분이니가 다행이 모면하였거니와 김

득배는 억원하게 정형을 당하여 시신사지내여 주지안코 저자거리에 벌여노왔
다 선생은 김득배의 천지를 힘입은 처지라 몸을 알아주는 의리를 생각할 뿐
안이라 그가 죄업시 극형당하였슴을 원통이 녀여 당신이 죄고에 몰리겠슴은 조
곰도 괴란치안코 왕세간청하기를 김득배는 당세에 물망이 잇는 재상으로서 공
이 잇고 죄는 업는 터이온데 무단이 참혹한 형육을 당하고 시신사지것우지 못하
게하시니 이는 밝은 조정에 과한 형벌이온지라 신이 그의 문생으로서 다른 사
람과 갓치 입을 봉하고 말을 안이하오면 신명만 잇기고 의리를 물으는 것이 옴
기로 죽기를 무릅쓰고 감히 알외오니 김득배의 시신을 신에게 맡겨 감장케하
신후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는 언사가 강직하고 정의가 간촉하다 왕은 그
제야 감동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청대로 김득배의 시신을 내여 주어 매장케하고
선생은 근본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죄를 주기는 고사하고 돌의여 벼
슬을 뜻우어 식였스니 공민왕도 그런 일은 을케 조처하시엿더라

그 이듬해에는 녀진국(女眞國)에서 고려국을 침노함에 공민왕은 아래 조와
한방신으로 하여곰 대군을 거느리고 북도로 나아가 녀진군을 치게하는데 선
생은 장수의 도락이 잇다하여 한방신의 종사관을 삼았슴에 선생은 감히 사양치
못하여 행군하는 날에 모친세하저하니 모친은 천연한 기색으로 훈계하기를
너의 몸은 나라에 허한 몸이니 내가 잇슴을 녀려하지 말고 전장에 나아가 힘을

다 하여나 라는혜를갑홈이 올흐니라 하였습애 선생은 두번절하여 명하심을받
고 종군하였스니 그러한어머니기에 그러한아들을 두엇는줄알만하다 선
생은문관이지만은 군무에종사함을당하였는고로 군복과안마를갓추고 진압
헤나서니 또한일원대장의괴상이라 립진대적하여 출모발려함은 신출귀몰
하여 세번싸홈에 적병을크게매드리고 개가를볼드며돌아올적애 백성들이
향축을베풀고 길을압질너절하며칭송하기를 장군도용맹하시거니와 학사의
모계를사다하였고 공민왕우성문밖이나와 장졸을로문하고 선생의벼슬을
뜻우고 자금이대(紫金魚袋)를사송하였스니 자금이대는 전장에나아가 큰
공이잇서야 주는법이다

그후로는선생이 내직에종사하여 나라에리롭고 백성에게편할만한일이면 마
음과힘을다하여 인군제알외엿습애 인군도선생을 사랑하고밋어서 알외는
말을 배척지안코 만히순행하였스니 공민왕은자격이쫓치못한인군이지만은
선생의말을능히드림을보건대 선생의지성은 물론엇더한사람이든지 모다
감복하였습을 가히알만하다 이러케삼사년동안에 나라도적이 편안하였고
선생도후한독봉으로 모친을 극진공양하다가 모친이병환에얼키여 세상
을버렸습애 선생의애충망극함은 부친상사때와일반이라 고향에반장한후 또
한움을뚝고 서묘하는데 공민왕은 다른신하들의 백일공제(百日公除)하는

일을의방하여 선생의벼슬을 돌우식여불은신다 선생은사직하는상소 대궐에
하였스되 폐하께서 초토신(草土臣)을불으섯습은 근래사람들의 백일공제
를의방하심아오나 신은방자한죄를당할지언정 감히거행치못하겠소이다 대
개는 자식이난지삼년이되야야 부모의품을떠나는고로 선생과선왕이 삼년
거상을 마련하신바이온데 근래에상례가폐하여 백일이면 상복을벗고벼
슬을단이오니 이는례법에크게의운일이옵니다 폐하의밝으심으로 백성을
효도로써다스리시는바에 엿지 그런폐단을막으시지안코 인하여준행코저하
시나닛가 신은비록미거하옵고불사하오나 부모의은덕을 저버릴길업사와삼
년을거상하겠사오니 통촉하옵소서하였더라 공민왕은그상소를보고 무연한
괴색으로 탄식할뿐이요 선생을다시불으지안엿습애 선생은여전히 삼년시묘
하는동시에 그전시묘하든때와갓치 범이또와서거행하였는고로 공민왕은그
소식을듯고 선생다려 천생대효라칭찬하며 레부에신축하여 선생의시골집
압해 효자정문과효자비를세웠는데 지금까지그집터에 비석은그냥잇서보
는사람의 감상을도읍는다

결복된후에 레조정랑으로 불려올너와 성균관대사성으로 올엇는데 이때
에란리가지낸똥치라 학교가폐지되여 공부하는사람이 별로이엿습을 선생이
깊히개탄하여 왕세알위고 성균관을중수하며 도성오부와 지방각처에 학

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취택하여 학생을 교육하였는고로 그후부터는문학너
한유생이마하쓰며 유성들이선생의 고명한직견을탄복하여 동방성리학시조
라일커릿고 목은리색(牧隱李穡)과 야은길재(冶隱吉再)는또한당시명현인데
모다선생의 높흔지조와 김흔도학을 칭찬복종하더라

고려국에서는본래 중국원나라에복종하여 혼인도지내고 물화도통하고 복
새까지방불하였는데 이때에는중국에 대명태조고황제주원장이 새로이일러
나 강남금릉에도읍하고 차츰북으로나아가며 천하를정략하여 반이나넘어
점령하였다 선생은조정대신들과의론하고 공민왕제알외기를 국가에서 원
나라를섬기자는 세력에눌림이오 실상마음이안이온바 이제 천명이송운하
와 천하를거의다 평정하였사오니 국가에서는 어두운오랑캐를배척하고 밝
은천자를섬기기와 동국에서 레의숭상함을 천하가흠모하게함이맛당하오니 통
촉하옵서 국가행복을누리게하옵소서하였습에 왕은그말을좃쳐 곧명국에서
신을보내여 그뜻을보고하고 공물을받치니 명태조는크게기뻐하오셔 사신
에게 뉘가이런게교를내었느냐무르오셔 선생의의견임을알으시고 매우괴특
이녀이오서 이다음사신은 정몽주를들여보내라는 분부까지내리셨다

그이듬해에 명태조가 초나라를평정하였습으로 고려조에서하례하기위하여
홍사법(洪師範)으로 상사를삼고 선생으로 서장관을삼아 들여보내는데 그

때에는 강남팔천여리를 수로소왕태하는바 라는배는 지둔하목선이라 매
양풍랑에치패하는고로 사람마다강남에가기를 모피하지만은 선생으로말하
면 천자의명령이오 국왕의분부라 엇지감히사면하겠는가 천자제발천레물
과 배에서먹을양찬을 갖추어실었스며 반당과사격등 수십인을거느리고 만
경창과에 배를띄여나아가는데 가다가 습을맞나면 배를대여쉬이고 습
이업스면 밤이라도그냥행한다 여러사람이 한조각들판에 목숨을부치고
호소망々한바다를건늘적에 배밋히곳사지라 그위태하고신고합이엇더하겠는
가 수작만에거오 금릉황도에도달하여 천자제국서와레물을받쳤습에 천자
제서는고려국사신이 이르렀습을드르시고 매우반가이녀이오셔 불너들여보
실적에 정사는오히려레차가되고 특별히선생을향하여 위로하시고 포장하
섯스며 상급도반히내리섯스니 이는다름안이라 선생이명국을섬기기로 수
로하였는공을 표하여주심이라

사행이황성에두류한지 한달만에회환하는데 허산(許山)이란바다에이르러
는 별안간풍세가대작하여 물열이산데미갓치일어나며 배가조리질을한다듯
대가적기고 키가불어저 할일업는지경에는 배에잇는사람들이 모다괴색이
되어넘어졌는데 선생은원잔 정력이충분한사람이라 정신을돛치안코안젓다
바람에맞겨노은배가 이리저리몰려단이다가필경에는돌썩다군에부딪쳐 파선

이 되었스나 형편이 었지 되었것는가 정사홍사범과 그 이하 반당들과 사격등과 물품까지 모다 고기 배속에 장사 지내고 다만 선생은 정신을 이저 버리지 안 었는고로 새여진 남여지배 조각한 아예 의지 하야... 풍랑을 따라 삼주야를 출몰하다가 요행이 어니 조고마한 서슴에 부티 친다 잠시만 지체하면 돌우찌 나갓습애 선생은 힘을 다하여 몸을 솟쳐 뛰여 나렸는데 배조각우에 남은 물건은 말다래 한아뿐이라 그것을 싣집어 내려 갈고 안젓스나 사흘이나 굴문치지로 망하한바다가 온대 사람 업는 외로운 습우에 혼자 내려 아젓스나 비록 살었스나 또 하죽으 목숨이라 천우신조 하여 사람 탄 배나 한아지나 갈가바라는데 그 날 맛참 남경 장사에 배하척이지나 간다 선생은 이 왕에 한어를 공부하여 잘하는고로 그 배를 향하여 한어로 크게 소리 질느기를 고려사신이 표통하여 여괴잇스니 구제하라 하였스나 그 배도 바람에 물여가는 배라 암만대 이르하나 대일수가 업서서 바람에 맞겨 그양지나 간다 선생은 자분필사하고 한울을 울여려 탄식할뿐이러니 여러날 밤을 잠자지 못한 탓이라 혼몽중에 백발노인 한분이와 서일느는 말이 나는 너의 조상이다 네가 이지경을 당함은 또 한일 시운액이 어니와 몇칠만 더 기다리면 구제하는 사람이 잇스리라 한다 선생은 정신을 차려 몽사를 생각하고 기대려 보겠는데 먹을 것이 업스니 살수가 잇는가 몸에 진인대 짝 팔한 아이 잇서서 그갓로 말다리를 쓸어 씹어서 침을 화하여 삼키면서 헛청대고 누구가 오기만 바란다 남경 장사의 배가 선생을 구제하는 못하여스나 고려사신에 랑패함인 줄은 알엇는데 그 배는 다행이 파선이 되지 안코 금릉포구에 다 었습애 장사하는 사람들은 급히 배에 나려 어니 관부에 들어가 관원을 보고 말하기를 고려국 사신의 배가 파선되여 다 짜져 죽고 다만 한 사람만 남아서 아모서 읍에 잇는데 우리가 그곳을 지나다가 구제하려 하여스나 바람에 물이여 배를 대일수가 업서서 그양왓스니 그리 알르시고 조치 하십시오 만일 지체되면 그 사람 한아이 마저 굴머 죽을 터이 올시다 하여 습애 그 말들은 관원은 즉시 상부에 통지하여 천자께 주달되여다 천자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매우 놀나우서 급히 선척을 보내여 구제하여는데 표통하는 날부터 구제를 었는 날까지 열사흘 동안이라 꼭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업시 말다래 죽만 씹고 살었스니 선생의 괴질이 온전함은 가히 알만 하지 안이 한가 선생은 구제하는 배를 타고 돌우금릉에 도달하여 습애 천자께서는 선생을 불너 보시고 위경지내여 습을 위문하시고 후히 공피식히섯스며 거마와 복종을 주시와 강남명승강산을 구경단이라 하시며 만류하섯습으로 선생은 곳회환하지 못하고 강남 일관에 조후 경치를 안이 본 곳이 업시 다보얏고 일르는 곳마다 지은 글도 만치 마는 그는 다 기록하지 못한 다 그이듬해 칠월에야 비로소 번국에 회환하여 표통하든 사실과 천자의 우대 하신 은혜와 번국 조공물품 감성하여 주신 덕택을 전포하섯습애 공민왕도 선

생의 공외를 장하게 녀여 위로와 칭찬이 무수하였고 인하여 경상도 알현사를 서
엿다

선

안렴사는 조선시대에 관찰사라 일도풍속을 관찰하며 관하 수령을 포편하는 벼
슬인데 선생이 안렴한 후로는 완강한 풍속이 점차 변형되고 탐람한 관원이 모
다 지집하여 경상일도가 새로이 조흔 구역이 되었다 그때에 알렴사는 경주(慶
州)에잇섯는데 하로는 선생이 밤을 당하여 하인을 물리고 혼자 안젓드니 방

죽

문이 홀연이 스스로 열이면서 십오륙세 쯤 되어 보이는 처녀 한아이 다홍저고
리와 푸른치마를 입었는데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서서 이들과와 선생세 절하
고 한편에 비케안는다 선생은 의야하여 못기를 지금이야 심한때오 여고는 혼
금하는 곳이라 외인이 용이히 들어올수업는데 네가 자최업시 들어왔스니 필연
코 사람이 안이오 귀신인듯하나 무슨 소회가잇거든 바로 말하여라 하였습애
그녀자는 처처한 안색에 애애한 연성으로 말하기를 소녀는 과연 사람이 안이
오 귀신이온데 원억한일이잇사와 관장세 호소코저하오나 관장들이 보다 청
백이 부족하여 놀래기만하겠기로 호소치 못하였삼는바 대인께서는 범인과
다르신 정백이시오 백성을 사랑하시는 심덕이시기로 억울한 정사를 알외오
려 당돌히와서 뵈옵습니다 억울한 정사는 다름안니오라 소녀는 본읍서면

교

와리에서 옴는 백성 신유호(申裕浩)의 딸이온데 소생에 모는 일찍이 죽고 아비가
소실한아를 잇어 다리고사옵는바 서모의 성은 백가온데 심성이 암독하와 소

선

녀를 몹시 구박하와 의복이 몸을 가리우지 못하고 음식이 배를 채우지 못하다가 필
경에는 아비가 장사차로 멀리나간 동안이오 소녀가 고초에 부딪기여 신병으
로 누워알는때온데 서모가 소녀의 잠든때를 기회하여 방망이로 소녀에 머리를
싸여 부수어죽여서 호이불조각으로 찢아서 이러이러한 산밋해내어보내여 못
어바리고 아비가 들어온후에 소녀가 알다가 죽었는양으로 씌여내엿사옵애 아
비는 참으로 그러한 줄로만 알고 소녀에 무덤에와서 한번 슬피 우렷을뿐이옵고
의심이 업시 지내오니 소녀의 애원할은 이일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인대께서는
통촉하옵서 원수를 갚혀 주십시오 서모가 소녀를 죽이기까지 일은 음은 집안에
잇는 변々치 못한 재물을 소녀가 차지할사 의심함이옵니다 하는 말을 맞치고
목이 맏쳐 숨히운다 그호소를 자세히 드른 선생은 일변으로 그서모라는년의 소
행을 꽤 씌이녀이며 일변으로 그녀자의 몹시 죽었음을 불쌍이녀여 위로하는 말
로 대답하기를 너의 소회를 드르니 나의 마음에 측은함을 깨닫지 못하겠도다 내
가 도저히 사실하여 해원을 식여 줄터이니 염려 말고 물너가 있거라 하였습애 녀
자는 이러나 두번 절하여 사례한후 다시 문을 열고 자최업시나아간다 선생은
인하여 취침치안코그냥안젓다가 밝기전에 본관경주목사를 불러 일느기를 지
금으로 본읍서면 하리에 나아가 그동리에 사는 신유호란 백정과 그백정의 소실되

교

죽

는 백가계집까지 잡어 압세우고 이러스스한 산기속에 가면 조고마한 무덤 한아이잇슬터이니 그 무덤을 파헛치고 시신을 끄내여보면 심오륙세쯤된녀자의 시체인바 머리가 깨여져 비명에 죽은 시체이니 자세이 검시하고 살육을 만 들되 죽은녀자는 신가백성의 딸이요 죽인정범은 신가백성의 소실백가계집 이니 그리알고자세이사실하여 문서를 자여올리라하였습애 본관은엇진사닥 인지몰나 어리동절하다가 상관에서그일을 엿지그리 자세이알으심닛가 못 는다 선생은대답하기를 사실은차차알터이니 여서가서거행하라재촉하였습애 본관은감히지체하지못하고 곳나아가 그백성의집에 이르러 남녀두사람을잡 어압세우고 그 무덤에가서 무덤을 파헛치는동시에 백가계집은발서 시색이 되엿다 검시하여보니 머리가 깨여져 선혈이엉괴엿고 죽여파묻은지가 수 삭이되엿것만은 얼골이변하지안어 지금죽은사람갓흐니 원훈이맏쳐그리함을알만하다 다시의심할것업시 백가년에게 문목을내엿스니 그연이그지경을당하고야 다시무슨발명을하겟는가 개々승복하는바 녀자귀신이선생에게 하든말과 일호도를리지안는다 곳성옥하여백가계집을싸려죽여 원수를갹혀 준후에 본관은선생에게다시못기를 상관에서그사닥을엇더케알으섯습닛가 하 엿습애 선생은자그의행사를 은회치안는성질이라 그녀자의원훈이와서 호 소하든곡절을 대강말하였습애 본관이탄복할뿐안이라 그사실을듯는사람마

다 이상이녀엿다

고려시대에는 부처의도를숭상하여 재상의아들이들이면 한아는의례이 중 이되엿고 사환하는집사랑에 염주와장삼이 걸리지안이하면 지처가부족하 다하는시대라 선생은본래 불법을조와하지안어서 백척하지만은근본알든친 구한아이쓰니 성은박시오 일흠은숨기고 도호로해운인데 소시에는과거보든선 배로서 중년에중이되엿스니 알든친구를 중이되엿다하여 거절할길은엄습 으로 여전히상종하는바 그중은지식도유여하고 얼론도도저하여 진짓선생 에 벗될만한사람이라 그러함으로 서로마음을기우려 은회하는배업시지내 는터인데 선생이경상도안렴사가되여내려간지오륙삭만에 그중이선생을차져 내려왔다 선생은그중을마져들여 환여평석으로반기며 공사여가에 협실에 서상대하여 놀고안씨를갓치하면서 천지리치와 고금사적을 토론하며미々하 다 선생은박씨다려말하기를 우리두사람이 이처럼맞나쓰니 속에잇는말을 혹시은회합도잇슬터이니 조곰도은회합업시하자 하는말에대하여 박씨는빙그 레우으며 나는속에잇는말을 다할찌라도 한마디는 못할말이잇는길 하는 말을드른선생은 유심한사람이다 또한우으며 우리씨리야 엿지못할말이 잇스리오 아모말을한대도 관계업스니 말을하라 하며잡고줄은다 박씨 는 실업슨 말한마디가 잡혀나와서데 선생이줄음을 방차할수업는지경

이라 할일업서하는말이 내가그말을하면 당신은법을쓰는관장이라 나를죽
일터이닛가 그말을못하는것이니 당신이그말을듯고도 안이드른세음잡고죽
이지안갠다는 맹서를써노흐면 말을하오리다한다 선생은그대답에대하여의
심이점々더나서 그일할알고야말려고 그리하자 어려울뻔잇나하고 아모
말을한대도 죽이지안다는는 죽맹을써노왔다 그런데그때에야 경상도연일현
에 의심된살육사건한가지가잇스니 엇지된사건이나하면 소연녀자한아이산
밋밋해서혼자 면화를싸다가 누구의칼에썰려죽었는데 정범을알수업기로그
시신을매장하려한즉 시신에서악한냄새가진동하며 여러사람이힘을으로도시
신을운동할수업습에 할일업시그시신을 자괴잇는방에 그냥둔지가 수연이
되엿지만은 시신이변동되지안코 급게잠자는사람갓흔데 그후부터는그고을
에 비가오지안이하여 민심이흉々하다 정범을잡어야만 해원이되여 비가
올터인데 정범을잡지못하여 걱정되는의욕이라 선생은그옥사로인연하여 별
々궁리를 다하는판에 박씨의의심스러운말을드렸스니 그속을괴어히알려할
박게잇는가 박씨는선생이 맹서써노음을보더니 그제야말하기를 연일현에
서생인 의옥정범은 실상내외다 삼년전에연일현아모동리 산밋길을지나다
가 어엿분청춘년자가 면화싸는것을보고 마음이동하여 범하려한즉 그녀
자가저사하고 듯지안는바 그냥가다가는그녀자가 사람을식여 나를쫓쳐와
잡을새 녀녀가되여 차고단이는단도를빼여 썰녀죽이고갓섯자요 당신이맹

언을하섯기에 이말을발우하는것이니 나의죄는용서하여주시오한다 선생은
그의직초함을듯고 우연이탄식하며하는말이 내가너에게맹서하였습은사정에
관계요 네가지은죄는 공사에관계라 사정으로인연하여 공사를폐할수업스
니 너는죽을밧게업다하고 하인을불너 박씨를잡어내여 옥에가두운연후에
연일현에명령하여 시신을불너노코 연일현감과 경주목사를식여 장서는날
만인종종에서 그사실을설명하고 박씨를싸려죽였는데 그날로연일현에비가
오고 그녀자의시신도그제는 염습함을밧는데 그때까지말잇는시신이 림할
때에발서다 썩엇더라하니 해원이되사닥이라 선생이안이면 그옥사를출말
하였습수잇는가 후사람들이그일에대하여 평론하기를 선생의맹인은 요맹
(要盟)이라 요구하는맹서는 속여도관계가업는것이요 박씨로말하면 선생
이벗으로 대우하였습바에는 또한하등사람이안인데 엇지하여그와갓흔 형
한일이잇섯느냐하갸지만은 색계상에는 영웅렬사가업는것이니 김희책망할
베안이로다 그런데한낫녀자의원혼이 삼년감음을일우고 선생의압해서 정
범의녀을빼아서 제절로말을하게하였스니 가히두렵도다
선생의신기한사적은 그외에도헌다하지만은다괴록하지못한다 선생은경상도
안렴사를갈리여 다시성균관대사성으로들어왔는데 그때에공민왕이 시역지

변을 당하여 죽고 김의(金義)라는 권신이 명국사신채빈(蔡斌)을 죽였으므로 민심이 흉々하여 명국에 감히 사신을 보내지 못함에 선생이 주론하기를 인군을 시열하고 상국사신을 살해하였습은 다 원리를 닦두는 간신의 작죄요 조정과 백성의 뜻이 안이라 그런변고가 잇슬수록 급히 상국에 주달하여 사실을 변명함이 올겠는데 공연이 스사로의 심내고 겁내여 상국을 배척하면 이는 업는 죄를 작만 할이니 래종에 무슨 말로 발명하리오 지금 곳사신을 보내여 실상대로 알위는 일이 맛당하다 하였습으로 조정에서 그의론을 케녀여 명국에서 사신을 보내엿는 데 그때에 맞침 원나라사신이 왔습에 리인임(李仁任)이란 권신이 주론하여 명나라를 배반하고 원나라를 다시 섬기려한다 선생이 대의로써 거절하기를 필부라도 그짓말을 못하거든 일국 조정으로서 이처럼 무신하고야 엇지 천하 사람이 붓그림지안이 하리오 하였습에 권신들이 선생을 위위하여 언양(彦陽)으로 정배식엿더라

그이듬해에 왕의 명령으로 선생이 귀향을 풀려 명성에 돌이왔는데 이때에 일본국에서 자조군사를 파송하여 연해각읍을 침노하는 고로 조정에서 근심하여 라홍유(羅興儒)로 하여곰 패가대(霸家臺)에서 신보내여 화친하기를 요구하였더니 패가대주장이 화친은 재되 홍유를 잡아가두고 응식을 주지안이 하여 거의 굶어 죽게 되었는데 홍유가 틈을타 단신으로도 망하여 요행이 상고선을 만나 겨우 살아돌아온 때라 조정에서 다시 사신을 보내여 달내여 보고저하나 또한 홍유와 갓히 끈경을 당할사 두려워하여 사람마다 기를 모피하는 고로 권신들이 우왕의 명령을 빙자하고 선생으로 하여곰 일본보빙사를 삼앗스니 이는 선생의 정직함을 위위하여 남의 손을 빌어 행하려 함이오 선생을 무던이 녀여 보낸은 안이라 이번사신길에 선생의 친구들이 선생을 위하여 위태이 녀이는 녀려로 위로함을 마지안엿지만은 선생은 조곰도 어려워하는 괴색이 업시 길을 떠나 룡로와 수로와 여러 첩리길인 패가 대에도 달하여 그 주자를 보고 화친의 리로움과 전쟁의 해로움이며 예로부터 이제까지 이웃나라사귀는 도를 비진히 설명하는바 선생은 언제 그것케 공부하였는지 일본말이『또한 일등이라 그 주장은 선생의 청고한 자격을 공경하며 정당한 언론을 감복하여 극히 관대하며 소청대로 존행이라 일본에서도 불법을 중히 녀이는데 중들이 글과 글시를 조와하여 선생의 문장명필임을 듯고 각처에서 모혀들어 청구하였습애 선생은 그들의 청구하는대로 순식간에 짓고 써서 주는바 낮낮히 주옥이오 폭폭이 금수라 죽들은 큰크게 조와하여 사면에서 닥투어와서 략예에 선생을 대위 번가러메이고 단이며 각처명승지사를 모다 구경케하여 아르는 곳마다 글을 지어 부치는 고로 일본명산대찰에 선생의 글이 업는 곳은 업섯다 그처럼 일주년을 유람하며 룡승한대 우를 밧다가 회환할적에 아왕살우 잡혀가는 부국사람들을 모다 회환하

였스니 그공로가 컸더한가

그럭저럭사오년을 일본병란이업섯는데 패가대주장이박귀였슴으로 다시군사를조발하여 일등명장 아기발도(阿只拔都)가거느리고나아와 전라도각읍을침범하는바 형세가매우호대하다 조정에서그소식을듯고 심히경겁하여아래조를배하여 병마도통사를삼쇼 선생으로조전원수를삼어 갓치나아가싸우라하였슴에 태조는압진이되고 선힐은후진이되여 운봉황산(雲峰荒山)에이르러적병과싸워 크게패쓰리고 아기발도들배였스니 화산대첩은실상 선생의모약을 만히힘입었섯다 그때에는 최영(崔瑩)이가당국하여 도원수로잇섯슴에 선생은운봉에서승전하고돌어와 최영다려말하기를 리성계(李成桂)는원잔 비상한인물이어니와 이번전장에 그용맹과지략을보건대 과연대에듬은명장이라 지금 나라형세가 점々 쇠하고 백성의마음이 차차변하여진괴할수가업는데 그의세력과물망이 날로더하니 아마나라에 복이안이라공은별로이 주의하시오하였슴에 최영하는말이 그사람은 때의눈이오 범의거름이라 범상한자격이안임인줄을 나도항상의심하는배외다하고 그때로뵈히 태조의병권을빼이고 매양제방하였지만은 한울이명하신바에 사람의힘으로엇지하리오

그이듬해에 북편에잇는 몽고국(蒙古國)에서 또한장졸을출동하여 고려국변방을노략한바 형세가자못창궐함으로 변방직현장수가패진하여 급보가늘날날이듯한때 조정에서크게놀내여 대적할만한장수를취택하는바 아래조외에는 가합한사람이업는지라 할일업시또 아래조로써 동북변방마사를삼아낼여로내는데 선생으로써 조전원수를삼앗스니 선생은장략이잇슬뿐안이래 태조의권력을난우기위하여 갓치보내는것이다 그싸흠에두번이나나아가또적병을패쓰려 큰공을일우엇스니 선생으로말하면 태조의권력을난우기는새되 태조의권력을도와주는 일쯤되였지만은 전장을당하여 힘을다하지안일길은업슴에 선생은자괴의도리셋만하여가며 다른일은 운수에부처들뿐이였다 이때에고려국에는 권신들이주장하여 명나라섬기는정성이부족하였슴으로명태조께서 심히노여하오서 장차고려국을 정벌하려하섯슴에 고려왕은그소식을듯고 크게겁내여조신들과 계책을상의하였는바 조신들로말하면 모다일을그릇째리는 수단은잇섯서도 일을발우잡는 계획은업섯든지 서로돌아보며 가부가업슴에 왕은다시말하기를 지금사세는 급히 명국에서신을보내여 변명하여야 무사하겠스니 조신중에누가가려느냐하였스나 수로에협함도무섭고 명태조의위험도두려워서 자원하는사람이업다 왕은할일업사선생을불너들여말하기를 경은학식과언변이 당시에제일일썩안이라 천자께서도경을 귀중이알으시는터이니 경이한이고는 이일을담당할사람이업기로경

으로써 사신을 삼아 명국에 들여 보내려 하니 경의 뜻이 있더하노 선생은 대답하
여 알외기를 군부의 명령이면 물과 불이라도 피하지 못하겠삽거든 하물며 상
국 조차 참예온바 엿지 감히 행치안쏘릿가 그러하오나 천자의 탄신을 하례하
는 사신으로 들어가야 더욱 족겠삽는데 탄신은 륜집일쯤 격하였삽고 남경
은팔천리길에 구십일이오니 탄신전에 득달치 못할 념려가잇사와 한탄이옵지
만은 포문은 탄신전의 포문으로 만드려 주옵소서 하였습애 왕은 매우 기거하여 선
생의 말대로 만준행이라 선생은 포문을 맞히가지고 즉시 떠나 주야로 배를 멈우
루지안코 행하였습으로 탄신전날에 득달하여 포문을 밧쳤습애 천자께서는
포문에 쓴 일자를 교배하여 보시고 선생다려 말씀하시되 구십일길을 륜집일만
압해두고 썩나스니 이는 너의 나라 조신들이 집에 계형별을 당한사 두려워하여 감
히 오지 못하다가 뒤늦게야 마지 못하여 너를 보낸 것이로구나 네가 만일에 밤
낮 배도 하여 오지안였스면 오날여 괴를 득달하였슬 수잇느냐 소당은 방물을 회
각하고 죄목을 성도하겠도다 만은 너는 짐이 사랑하는 신하라 너의 청성을 위하
여 너의 나라 군신들의 죄사지 용서하는 터이니 너는 그리 알고 너의 나라에 돌
어가 는날에 너의 군신에게 짐의 뜻을 전포하여라 짐도 너를 위하여 용서하
는 뜻으로 회자문을 닦거 주리라 하신다 선생은 그 처분을 듯고 황공 감격하여 부
복사은하고 조선군신이 일심으로 상국으로 섬겨 변경함이 업슬 줄로 알외는바 한
어를 잘하는 고로 의리와 형편을 알어 듯기 쉬웁도록 분명히 변백하니 천자는 크
게 기거하오서 말쑥하다 칭찬하시다가 래종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나라에 충
신시오 짐의 고인이로다 하시고 래부에 신칙하오서 별달는례수로 대우하라
하시고 물품도 만히 상급하섯스니 선생이안이면 고려국이 무사하였겟는가
그이듬해에 본국에 들어와 천자의 명의를 받포하였습애 왕은 크게 기거하여 칭
찬과 상급이 무수하였고 그후부터는 조전에서 해마다 선생으로 사신을 삼아 명
국에 보내여 습애 천자께서는 선생의 근로함을 념려하오서 삼년에 한번씩 조
공하되 공물수효도 반액을 감하라 하섯스니 이는 다 선생의 힘이라 선생은
명국천자의 덕을 감격히 여 다시는 변경개치 말고 일심으로 명나라만 섬기
로 국왕과 조신에게 항상 권고하였더라

이때에 아태조의 명망이 릉 릉하여 조정 신하와 지방 백성이 모다 마음을 기우려 부
쫓는데 오직 선생과 최영 두사람은 왕씨만위하여 마음이 조곰도 울죽이지
안는다 최영은 태조를 제어코저하나 자기의 힘으로도 할수가 업스닛가 명태
조의 손을 빌어 제어하여 볼양으로 별계획을 쓴다 그때에 마침 명나라에서 만
주를 쳐서 점령한일이잇섯는데 최영은 비밀히 우왕에게 알외기를 명국에서
만주를 점령하였사오니 만주는 본래 고려지방이온데 무고이탈취함은 형
제지국으로 약조한 본의가 안이온지라 부득불 장수를 보내여 만주를 회복함

이 득당하온바 리성계는명장이오니 그을명하여보내옵시되 다른신하들이
 간쟁한대도 듯지말으시고 리성계가괴어히 사면코저하거든 왕명을억의운
 죄로 다스리심이맛당하여이다하였습애 우왕도태조를 때우괴탄하고 최영
 을전혀밋든터라 최영의계교를준행하여 태조를제어할양으로 태조에게그
 명령을내렸습애 태조께서는크게놀내여 명나라는범하지못할줄로 간쟁하였
 스나듯지안였고 그일이대단불가한양으로 선생도또한간하였지만은 마음
 에작성이잇는우왕은 도모지듯지안코 태조다려괴어히행군하라한다 태조는
 그명령을 복행할수도업고 거역할수도업서 근심하시는중인데 태조의다섯
 재아드님 태종은총명특달하신자격이라 태조세엿줍기를 최영도용우한사람
 이안이온죽 명국을립하는일이 그른일인줄을엇지몰으오릿가만은 귀타여이
 일을행하고저하여 왕을썌웁은 실상대인을괴탄하여 위태한쌍으로 부러느
 어 명국힘을빌어 대인을제어코저함이온죽 지금대인께서 괴어히사명을주
 저하시오면 왕명을거역하는죄목으로 대인을해칠터이오니 대인의덕업과권
 력으로 엇지최영필부의 롱락함을맞겨두시오릿가 찰하리왕명을 순히밧는
 체로 장졸을거느리시고 밧그로나아가게시다가 괴회를보아가며 조처하심
 이상책이올시다하였습애 태조께서도명달하신도량이라 태종의말습을청종하
 시와 조민수(曹敏修)이하제장과 군졸삼만을거느리고 의주로내려가셨다
 그일에 대하여선생은최영다려말하기를 리성계의강맹함은 사람마다아는배
 라 병권이나맛기지말아야 화단이급하지안겠는데 거느리기마다는군사를억
 지로맞겨보내엿스니 이는범에게날개를 작만하여준모양이오 또는명국을범
 함은 의리에부당한일이라 빙자하고거사하기가 좃게되엿스니 이는화란을
 비저노은계획이라 장군의생각은 엇더케들어서 이처럼조처하였는가요 나
 의마음은매우송구하오 하는말을드른최영은 그제야늬웃쳐하였스나 괴왕저
 조려노은일이라 할일업시 태종만기대리고잇섯다
 태조께서는행군하여 의주압록강(鴨綠江)을건너 위화도(威化島)에유진하였
 는데 때는여름이라 맞침큰장마를맞나 곤난이비상하다 제장들은태종의비
 밀한약속을 드른터이라 태조세엿줍기를 이제형편으로 나아가면죽는쌍이
 오 물너가면사는쌍이오니 바라옵건대 괴와북을돌이켜 여러만명목숨을살
 리시고 인군의것헤잇는 그른사람을업져여 국가를편안케할이 상책입니타
 하는말을 군사들이듯고 일제이고함하여 우왕과최영을원망하며 태조세목
 습을살려주소서 하는소리가 우뢰갓다 태조께서는군사의마음이 변하였습
 을보시고 할일업시장계하기를 큰비를맞나 활에심이풀리고 창에독이슬어
 서 쓸수도업거니와 군량을이을길이업서々 마지못하야회군합니다하여 먼
 저을려보내고 인하여회군하여올너오신다 최영은그소식을듯고 크게놀내여

선생에게 말하기를 리성제가 조정 허락을 받은 처업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와
갓흔거조가 잇스니 선생의 추척하심이 과연을 소이다 그가 이곳에도 달하
는 날이면 필연 종용치 못할 터이니 엇지 하면 조흐릿가 손을 묶고 안저서 기대
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성중에 남은 군사를 내가 거느리고 나아가 막는 것이
엇디 하오릿가 선생은 우연이 탄식하며 대답기를 수철명도 못되는 잔약한 국졸로
삼만 명이 넘는 분노한 군사를 대적하려 함은 알로 돌을 싸리는 격일뿐 아니라
그의 살한 개면 죽지 않는 사람이 업스니 장군의 이 계교는 명을 재촉할 따름이
라 찰하리운 명대로 맞겨 두는 것만 갓지 못하지 오하는 말을 드론 최영은 엇지
할 돌이 가 업습에 허회 탄식할 뿐이 엇섯다

태조께서 회군하여 올너 오시다 평양 땅에서 막마 하오서 신체가 중상 하섯다 하
고 좌차를 타고 오신다는 소식을 드론 선생은 매우 기뻐 하다가 다시 생각기를
그가 말 잘라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만군 진전에 풍우갓치 달릴 적에도 한번락
마한 일이 업섯는데 탄々대로에서 완々이 행하면서 떠러 질리가 잇는가 이는
필연 최장군과 나의 마음을 가려 안치는 계교로 다 하엿더니 태종께 보건대 과연
그러하다

태조께서는 회군하여 송경에도 달하 오섯습에 선생과 최영은 과미를 알고 불양
으로 군중에 나아가 회유니 태조는 혼연한 안색으로 접대하여 보내섯는데 그

잇든 날에 태조는 조당에 들어와 백관을 모와 노코 명국을 향거 함은 대역부도리
는 죄목으로 최영을 봉직현(奉直縣)에 정배 하엿다가 태종에 수원(水原)으로 이
수하여 죽이고 우왕을 폐하고 우왕의 아들 창왕을 세웠는데 우왕과 창왕은 왕
씨의 자손이 안이오 신돈(辛旽)의 자손이라는 공론에 의하여 창왕을 또 폐하고
공양왕을 세웠스면 공양왕의 명령으로 선생을 배하여 문하시중 평장사를 식엿
스니 그때에 조정 권세가 온전히 태조에게 들어갓다 선생은 필경에 나라가 움
길 줄은 알지 만은 당장 형편으로는 태조께서 명나라를 배반치 안는다는 대의로
조처 하시는 바에 무엇이랴 책을 잡을 수도 업고 또 신우신창이란 말은 여러
사람의 공론뿐 아니라 공민왕비가 음란하여 신돈이란 중놈을 통간 하엿습은
선생도 아는 배니 지금와서 여러 사람의 공론을 선생이 혼자 외일 수도 업는 사
세요 또 태조께서 말우 나라를 옮겨 가지섯스면 물으되 왕씨를 다시 세우
시는 바에는 복종할 수 밧게 업는 고로 여진이 종사 하엿다

선생이 정승된 후 사업으로 말하면 그 전에는 고려국에서 원나라 복색을 입었는
데 이때에 선생이 주론하여 호복을 금하고 명나라 복색을 입게 하엿스며 세력
잇는 집에서 들 백성의 토지 겸병하는 폐단을 못쳤스며 사대부 집에서 불법을
숭상하여 괴일에 재물은 풍속을 못쳐 사당과 신주를 만드려 제사를 지내게
하엿스며 수령과 감사를 어질고 밝은 사람으로 갓이여 백성에게 폐가 업게 하

엿스며 쓸데업는관원은 모다감생하고 고을마다 도사한아식두어 돈과곡
식을 출납하게하였스며 각읍에학교를세와 선배를장려하였스며 의창을세
위 곤궁한백성을 구제하여스며 수로참을마련하여 조운을편리케하였습은
모다선생에 새로히곳치법인데 조선대조등극하신후에 그법을모다그대로준
행하였스니 선생은고려국 어진정승이지만은 조선국어진정승노릇까지 겸
하였다하여도 과한말이안이다

공민왕시절부터 우왕시절까지 인군과신하가 어질지못하여 정사가물란하
고 백성이원망함으로 천재지변과 인요물괴가 연하여생긴다 혜성과미성
이 해마다나고 신평물이 자리를락구며 남자가화하여 폐집이되고 귀신
이동하여 백주에뵈이며 불가살이라는 괴물이생겨서 불에너어도 죽지안
코 칼로찌르면 잘너먹으며 여호들이 폐집으로화하여 민가에단이며 한
아는 사람이병이들어알케하고 한아는 푸닥거리로그병을낫게하여 금전을
모다것우어잔다 괴변이이처럼종々하니 백성에마음이엇지 송구치안이하며
나라형세가엇지 쇠약지안겜는가 선생은여러가지재앙에대하여 우연이탄식
하며하는말이 옛글에일녜스대 나라가장창홍하려면 반듯이 상서가잇고 나
라가장차망하려면 반듯이 요일이잇다하였스니 요일이이처럼빈삭함은 나
라가망할장본이라 엿지한심치안이리오하고 덕을닥그면 재앙이업서진다는

뜻으로 인군을여러번 잔하였지만은 뜻지안는바에야 선생인들엇지하리오
태조께서국권을잡아 공양왕을세우고 선생이정승이되여 정사를곳치지 수
년동안은 큰재앙이업섯다

태조와선생은 너괴가동갑일썸안이라 지괴가또하상합함애 영웅이영웅을알
아주고 성성이 성성을앗겨주는격으로 서로알아주고 서로앗겨주는바 또
는 몇번전장에 한가지나아가 사생고락을갓치하였습으로 정의가더욱자별
하였는데 선생은심계가밝은호걸이라 태조가왕자에괴상이잇습을 지괴한연
후에는 자연이괴괴하여 때양최영과괴론하고 태조를제방하였스니 태조도
심계가밝으신호걸이라 엿지그동정을모르리오 서로 서로괴괴하는마음이
생겨서 그후부터 것호로는조와하는듯하나 속으로는틀여지낸다 태종께서
는총명영달하신자격인데 조선을창업하심이 모다태종에힘이라 공양왕삼년
에이르어는 일이거의다되었는데 다만선생의 일편단심을거리끼여 엿지할
수가업습애 태종께서는 하륜(河崙)다려 비밀히말습하시기를 포은선생은
당세인재오 국가물망이라 그의뜻을돌이지안여서는 우리에일이되지안이할
터이니 공이그의게가서 운수와시세를편론하여 그의지괴를 찌보시오하였
습애 하륜도명철한사람이라 엿지선생의뜻을모르리오 태종에말습을듯더니
한참을생각하다가대답기를 포은은 철석같은성질이오 송죽같은절개오니 아

모리말을 잘한대도 나의 마음만 발외일뿐이오 쓸데가 업을 뜻할이다 그러하
오나 이처럼 부락하시니 한번가서 수작은 하여보오리이다 하고 선생께서
번갯섯스나 그뻘은 선생이 정승으로 잇는새라 사무가 다 단하여 좌석이 번거
함으로 수작을 내이지 못하고 근양도라 왔다가 하루는 밤에 틈을 타서 술한병
을 손수가 지고 선생에게 처소에 이르러 미미한 담화하다가 말뚝을 못치 못하기를 근
수년이래로 포학한 정사가 업서서 재앙과 요일이 별로이되이지 안것만은 조
정과 색과 민간동정을 살피건대 모다 안정치 못하여 다른 희망이 잇는듯하니
그는 엇지 한사 닥인지 선생은 천사와 인사를 알으시는 터이라 가르치심을 바라
오니 한번 말씀하야 미혹함을 열여 주시오 하면서 선생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
다 하씨는 대조의 심복사 략임을 아는 선생은 그 말을 듯더니 아연이 웃고 마
주 건너다 보며 대답하기를 충신은 재앙과 요일도 두려워하지 안코 조정과 색과
민간동정도 교제치 안코 나의 도리만 다하여가다가 죽을 뿐이 아니 다공은 무
엇을 미혹히 녀이시는가요 나다려는 그런 말을 못지 말고 술이나 먹읍시다 하
였습애 하씨는 다시 입을 열지 못하고 술만 먹다가 돌아와 수작하든 말을 대종
제전하고 그의 마음은 과연 요동할 수 업는 양으로 고백하였습애 대종제서도
탄복함을 마지 안이 하시더라

그럭저럭 공양왕사년인 임진년봄이 되도록 조선개국공신들이 대조를 열여

되시지 못하였습은 실로 선생을 과탄함이라 여러공신들은 대종제 엇줍기를
포은을 업새지 안아서는 일이 될수가 업스니 의심치 말으시고 결쳐하옵소서 하였
습애 대종은 할일 업시 여러사람의 청대로 주의하신다 하루는 대조의 탄신이
라 부중에 큰 잔치를 베풀고 선생을 청좌하였스니 선생은 배가 할일이 업습으로
잔치에 다다렸는데 선생은 대조와 년배 친구라 대종은 존장으로 대우한다 친
히 술을 부어 올리면서 노래한 곡조를 불러 그 지기를 떠보려 하였습애 선생은 그
쓰을 아는 고로 노래를 화답하는데 노래 일흥은 백사가(百死歌)라 그 노래에
하였스되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곳쳐 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고 혼백이 잇
다가 업서 지기까지 인군을 향한 한조각 붉은 마음이야 엇지 곳칠이가 잇스랴
(此身死了死了百番更死了白骨爲塵土魂魄有也無向主一片丹心寧有改理也歟) 하
였더라 대종제서는 그 노래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일수 업음을 알으섯습애 말
습은 안이 하시나 속으로는 매우 애달게 녀이섯다
선생은 명달한 군자라 천사와 인사를 밀우어 나라복조가 음기를 알지 만은 당
신의 힘으로는 회복식할수가 업습애 다만 길게 탄식하며 이여체를 할뿐이오
한조각 붉은 마음은 조금도 변개함이 업시 시세되어 가는 대로 맞게 두고 잇섯다
임진년시월에 이르러는 조선개국공신들이 선생을 업새자는 뜻으로 대종제루
서히 간청하였습애 대종제서는 할일 업시 심복장사 조영규(趙英珪)를 불러 말습하

시기를 그대는 군기고에잇는 쇠도리개한아를가지고 태일아침후에 선지
교(選地橋)엮헤숨어있다가보면 정포은이 대궐에들어가는길에 그리로지날
터이니 곳내다려 도리개로쳐서죽이고달어와 알게하라하엿슴에 조영규는
분부를듯고 거행할차로물너갔는데 태종은사매로 낮홀가리오고을으신다엮
헤잇는하륜은 그곡절을못자왔슴에 대답하지기를 사세부득이어니와 일대
명현을 살해하는바에 나의마음이엇지 솟흐지안이하리오하섯쓰니 이말삼
에대하야 태종은 어진인군의도량이심을알만하다
선생은 명을맞치는 전날밤에숨을쉬니 엄연한어룬하분이 고대의관을갖추
고이르러말습하되 명일에는네가 절개를세우는날이라 궐내에들어가지안코
집에잇섯스면 화를혹시 면할듯도하나 네가마음을곳치기전에는 필경당하
는날이잇슬터이니 잠시모피하면 쓸데잇는나 라고난 운명대로 순하게받
는것이올으니라 나는다론사람이안이이라 네가 세상에래여날대에 점지하여
주든 주공이다 하시는말삼을듯는선생은 어러서붓터들은바 자괴에부친이
주공을숨썩고 자괴를탄생하엿슴으로 자괴의일홈이 몽유인줄은아는지라 급
히일어나 절하다가 숨을쳐여생각하여보니 일이잇슬조짐이라 그리하나쥬
곰도 요동하는마음이업시 밝기를기대려 부인리씨와 두아을대대하여 몽
사들이악이하고 부인에게다시부락하기를 나의오날날일은 마음에본래 정

한일이니 다사변개할수업기로 나라를위하여 목숨을받치거니와 나의집은
대々로 충효를숭상하는집이니 부인은두자식을 잘인도하여 가성을떠러르
리지말게하고 나라가박귀는것은 한울이정하신운수라 나는나라에몸을받쳐
더래도 자손은 재조정에벼슬합이가하니 그리알고준행하시오하엿슴에 부
인은체읍하고 두아들은호곡한다 선생은인하여 조복을갖추고 사망에하직
하고 문에나와 말을달적에 두아들이싸루고저하엿슴에 선생은 자상이
효유하고 엄정이훈계하여 들여보내고 활한바탕씀행하여 말우에서멀리바
라보니 누구인줄은몰으겟스되 키큰장사한아이 쇠돌잇개를 썩에질々쓸고
간다 선생은내심에생각기를 을쿠나 저괴계를사용하논구나하고 인하여싸
루는 룯사를돌아보며말습하기를 오날홍색이 매우괴이하도다 너는귀타여
험한쌍을밟을싸닭이업스니 몸을피하여라하엿스니 룯사는무슨사역하는사람
이나하면 대신의압해항상싸루는관원인데 선생의룩사는 공민왕때에 시종
벼슬지낸 김구주(金九周)의아들경조(慶祚)라 여려해를선생제 종사하는바
위인이 충근신실하여 레법과의리를아는교로 선생이매우 사랑하는터인데
경조도선생의 립절사의하려는 의향을안다 지금선생의말습을듯더니 천연
한괴색으로대답하기를 상공에서오날々을당하싰바에 소인이엇지 혼자살기
를도모하오릿가 상공은나라를위하시고 소인은상공을위하음은 맛참가지의

리를시다하며 말뒤를쫓쳐 여러번금지함을 듯지안는다
 선생은할일업서 룽사를다리고행하다가 력로에 당신에친구인 원임정승성여
 완(成汝完)의집에들어가니 주인이 집에잇지안이하다 하인을불너 안악에
 계신 주인마님께 잠시간 밧그로나아옵소서 전갈을하엿슴에 주인마님은
 쏫밧게 전갈을듯고 전갈한사람은누구시나알어보니 그전에갓금오시든 정
 포은상공이라한다 주인마님은대단 이상이녀엿스나 다시생각건대 포은상
 공은 대인군자인데 남의부인과 상대하기를 청할적에는 심상한사담이안
 이라하고 계집하인을다리고 중문밧게나가서서 엿지하여불으신 연고를
 무릎슴에 선생은말슴하기를 이사람이그전에 여러번덕에와서 술을먹어보
 은즉 술맛이매우죠키토 오날또먹으러왔더니 밧것주인이계시지안이함애 불
 감하오나 부인께서술을만히 먹여주소서 청하고저하여 나아오십소서함이
 외다하엿슴에 부인은대답기를 그만일이야 하인다려만 분부하셔도 거행
 할터이온데 엿지하여이사람에게면탁하지하심닛가 하는말에대하여 선생은
 다시대답기를 오날먹는술은 이덕주인이알어야되겟삼는데 주인이나가고
 잇지안이하니 주인의대신으로 부인께서라도알으셔야쓰겟기에 그리함이외
 다하엿슴에 부인은그곡절이 엿진곡절인지몰으나 다시못기는지번하여 그
 만듯고곳들이가 조흔술을안주갓추어 만히진배하엿다

선생은내여오는술을 부어들이는대로 만히만히자시고 룽사도몇잔먹인후에
 문밧게나아와 다늘근하인몇々흔 다물려보내고 말을뒤집어탄다 룽사는선
 생의거조를보고 이상이녀여말하기를 상공께서오날을당하시와 술을평일보
 다 과히잡슴지고 또는말을압뒤가박귀게라시오니 엿진연고오닛가하엿슴애
 선생은대답기를 오날은내가 목숨을맛추는날인데 부모의혈육지신을가지고
 말언정진으로죽기가슬혀서 술을만히먹어 정신을희미케함이오 압흐로달려
 들어 싸리는모양을보기가슬혀서 말을뒤집어타는것이다 하는말슴을듯는 룽
 사는 처연이눈물을내렸스나 자리가죽기를 원통이녀이는눈물이안이라 선
 생의죽음을 조상하는눈물이다 인하여선지교에다々르니 별안간엿던 장사
 한아이 쇠돌잇개를들너메고 달려들여싸리려하는데 룽사가급히달려들어 선
 생을싸안엿슴애 먼저돌잇개는 룽사가마져 업드러젧다 말이놀내여 몇거
 림을뛰여 다리를다지나가기전에 장사는발서 압홀막질너 돌잇개한변이또
 내려지는알에々 선생이말에떠려져 명을맛쳤스나 선생의그때년과는오십세
 오 날은사월초사일이라 돌잇개질하든장사는 누구나무를것업시 조영규다
 룽사는다리서편에서 명을맛치고 선생은다리동편에서 명을마쳤는데 선생
 이순절하든날밤에 대한쪽의가 순절하든자리에 낫슴으로 다리일홈을 선
 죽교(善竹橋)라곳첫는데 대는몇철후에 삭어업서지고 그자리에 피흔적이

잇서 여러백년이 지나되 업서 지수안이하고 지금까지 완연하니 충성의 감동
함이안이하면 그러할수잇든가 그후에 선생의 후손 정호인(鄭好仁)이가 개성
유수로가서 피흔적잇는데다가 돌로 란간을만들고 비석을세워 사적을괴
록하였고 그업허다함이다리를노와 왕래함을통하게하였는데 선생이순절한
후지금까지 오백여년이래로 글하는사람은 선죽교시를 짓지안인이가업서
몇만수가되는지몰으지만은 그중에한수만괴록하던대 흰날고려국에 붉은충
성정몽주로다 천년다리알에물이 한강으로들어가흐르지안터라 (白日高麗國
丹忠鄭夢周 千年橋下水 不入漢江流)
우는그후일을 괴록함이어니와 그날에조영규는 선생과록사를살해하고 들
어가태종제보하였는데 반시각안에 선생의순절되였다는소문이 원씨중에퍼
저서 선생의부인파아들형제가 급히그곳에가서 신체에업티여 투곡하였습
은 물론이어니와 만성중남녀로소가 모다분수호곡하였스니 선생의덕택이
백성에게만히밋쳤습을 가히알만한데 이일이태조의조화에서 출생한줄을사
람마다짐작하지만은 감히말하는이가업섯스니 태조의위엄과덕택이장함을 또
한가히알만하다

태조는선생의 필영되였습을드르시고 락루하섯스며 공양왕의명령으로 금
은포백을만히사송하여 선생의집을고홀하였고 선생은해동땅에 장사지내엿

다가 그후십오년만에 선생의본향영천으로 이장하는데 상여가룡인쌍에이
르러는 압해영정들고는사람을 홀연이늬가잡어다리는것갓치 뺨길로가서
지금산소자리에이르러긋치고 더가지안이한다 상여는할일업서 명정을따러
가서 신지에이르니 상여군의말이부터 더갈수업습으로 그자리에장사지내
고 부인리씨를합평하였스니 지금그동리일홈은 룡골이오 선생의서원이잇다
태종대왕때에령의정을중직하고 억양부원군을봉하였고 문충공시호를내렸고
세종대왕때에선생으로 충신록에열명하였고 문종대왕때에 마전승의전에배
향하였고 중종대왕때에 문묘배향하였고 효종대왕때에 본가에충신정문을
세웠고 숙종대왕때에 영천과개성과룡인에 서원을지었스며 백사가를두고
지으신글이잇고 영종대왕때에 산소압해충렬비를세웠고 고종대왕때에 개성
서원압해 충신비를세웠스니

태종대왕으로말습하면 당신이죽이신사람을 당신이포양하섯고 열성조로말
삼하면 당신네조상께서죽인사람에게 정충대절을포양하섯스니 당신네조상
은 충신을죽인혐율이되지안는가 이로론하면 태종께서행하신거조는 사세
부득이오 즐거워행하신일이 안인줄을알겄고 또는선생이 한번죽었습으로
크고높은명예가 백천년에유전하였스니 이로말하면 태종께서행하신거조는
선생에게조흔일이오 그른일이안이라 할만도하고 또는나라를다스리는법은

내나라를만대하는 다른나라충신을포양하여 내나라신하를 경계하는법이 다
선생은정명한괴운을 타고나서그러한지 와석종신이 못되어서그러한지 순
절한이후에령현스러운일이만했다 산소면례할때에 령현은이왕말하였거니와
숙종조때에 선생의괴신날인데 선생의서원것해서 천화가일어나 삼백여호
가라고 불이서원에 범하는지라 부중사람들이 급히서원에 들어가 위패와
화상을 되시키고나아오려하는데 홀연이등북간으로서 검은구름한점이이러나
며 소낙비가쏟아져 불을다멸하였습애 위패와화상을 되시키고나오든사람이
밋쳐서원문밖까지 나가지못하고 돌우봉안하였는일도잇고 영천고향의사는선
생의자손의집에 불이나서가사집물이 온통소화되었습애 선생의문집이또한
회록중에들어갔다 문집에잇는 선생의화상까지 소화되었습을 한탄하였더
니 수일후 그집앞 배나무우에 조희하썩이 나뒹기는데 자세이보니 선
생의화상이라 다른책에 봉안하였든일도잇섯고 영종대왕때에 손정승순효
(孫政丞舜孝)가 경상감사로 순력돌다가 영천고을에서 숙소하는데 선생
이현몽되는지라 꿈중후에감동하여 선생의고택터에서본즉 고려썩에 효
자정문세운비석이 풀속에못치엿는지라 감동함을마지안여 꽃비각을새로짓
고 비석을곳쳐세웠는일도잇고 또는근년에 큰비가와서 선생의사당집뒤에
산이문어져 큰바위돌이내리굴너 곳사당집을 눌러부수겻는 형세가되었는데

바위돌이 사당근처에와서는 곳곳쳐서고 내려오지안이한일도알섯스니 그

는다 선생의신도가잇서 령현을괴인일이안이라할수잇는가

선생의정충대절과 고행탁식은 저저히다번역할수업는고로 그만두고 숙종
대왕께서지으신 선생의화상찬을번역하여 싯홀막는다 화상찬에하였스되 수
연한화귀는 광종제월이로다 의관은청고하고 정채는발월하도다 왕좌지재
를품엇고 성리지학을창시하였도다 세상이모다이단을충상하되 선생은홀로
공자를돕히는도다 집에거하여는오죽효도요 조정에서々는충성으로써하는도
다 섬기는바에 마음이전일함애 죽는데나아가기를중용이하였도다 열렬한
시종이여 강상을붓잡어심겻도다 한올에다웃도록떠러치지안이함이여 착한
일홈이한정업도다

(粹然和氣光風霽月衣冠高古精彩發越寸抱王佐學倡性理世崇異端獨存孔子居家
以孝立朝以忠專心所事就死從容烈烈侍中扶植常綱窮天罔墜令名疆無)

振替京城九七五番
私書國光化門局二三號
三 文 社
發行所

임으라! 靑天霹靂갓치나타난爆笑누문의傑作小說

임으라! 누가이冊을손에의고아니우슬사람
이누구나? 초상상제라도아니웃고는못배일
天下一色! 임으라! 참으로기백한冊임으라

爆笑!

爆笑!

넌센쓰!

넌센쓰!

천하일색

錢十七價定

天下一色은太平에요! 드會社에서가장우수
한작품을인택한爆笑의傑作品이다이冊의나
오는人物은朝鮮劇界名喜劇俳優의總出!

이冊의나오는人物은누구나? 우리들이잘알
고있는人物이다그는누구인가? 春香과李夢
龍이다! 아! 이누문의小說을속히求하라!

녀중화

錢十五價定

女申花! 女申花! 이小說을손에든다면
누든지 또다시 또다시읽고야만는 珍奇
한小說이다 임으라! 天下의傑作을!

內容一部紹介

美人산양	申銀鳳外	一人
사랑의血祭	申世鳴外	三人
要컨대哲事	申銀鳳外	三人
가을의三銃士	李眞紅外	二人
바다의로맨스	申銀鳳外	二人
風流人生	朴世鳴外	一人
長恨의大同江	申銀鳳外	一人
電話로만스	申銀鳳外	一人
말한호夫婦	申銀鳳外	一人
아바지經濟	申銀鳳外	一人
其外爆笑數十餘篇	申銀鳳外	一人

內容一部紹介

朝鮮古代小說中에 春香傳이라면
누구나모를사람이없다 이번
本社에서는만호費用을회생하면
서內容을一新시킨一大作品이다
페지페지마녀나흔그림은참으로
本小說의特色이다! 前無後한
一大傑作品! 삽화만보드래도누
구든지생각지못할一大小說!

三新 文社 書林 店

朝鮮出版界를風靡시키는二大作品누가아니임으라